

#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제,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 어렵다

### 감염병 국면 지속 일자리 '뚝'... "한 달에 13일 일해" "월세 걱정에 아들 용돈 10만 원 보내기도 힘들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6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인력대기소. 10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앉아 자신의 이름이 불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따, 오늘은 일이 있다며. 이런 게 어딴는가"

한참을 기다려도 일자리 소식이 없자 한 구직자가 소장에 큰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내었다.

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운 좋게 일감을 구한 구직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피던 담배를 급히 끄고 차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이들도 내일이 되면 다시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일용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됐다는 서모(40)씨도 이 중 한 명이다.

서씨는 10년 전 자신의 가구 사업이 무너진 뒤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하자 공장은 고용 인원을 대폭 축소했고, 그 자리는 젊은이들이 대신했다. 어느덧 중년이 된 서씨의 자리는 없었다.

노부모를 모셔야한다는 생각으로 급히 일용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꾸준한 수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용직 구인이 크게 줄었다 때문이다.

서씨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부모님을 모시고 광주 보다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떠날 예정이다.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력사무소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구모(48)씨는 "내가 겪었던 그 어느해보다 최악의 고용난"라며 혀를 찼다. 그는 지난 5년 간 광주에서 늘어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바빠 다니며 수입을 올려왔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상황이 변하

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외부인 채용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일이 생계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이마저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용돈을 주지 못하게 된 아버지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박모(52)씨는 하던 사업이 크게 기울며 일용직을 시작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아내를 떠났다.

아직 대학생인 아들에게 매달 단돈 10만 원이라도 보내주는 게 아버지의 도리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마저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

박씨는 "당장 내 집의 월세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오늘도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같은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모 인력사무소.

인사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이 대기실에 들어서자, 이모(61) 소장은 장부에 그의 이름과 배당 장소를 적었다.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이지만



지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기실에는 벌써 10여 명의 사람이 들어섰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평균 13만 원의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상황 또한 녹록지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건설·철거 공사가 크게 줄어든데다 일반 사업체와 가정집은 감염을 우려, 리모델링 공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대기소 소장 이씨는 "건물이

팔리지 않으니 공사 회전율이 '제로'다. 게다가 사업자들도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에 외부인을 들이는 것을 꺼려해 일용직 자리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15년 째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는 신모(61)씨는 사흘 만에 일터로 향하러 가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전남 영암의 건설 현장으로 떠나는 차에 올랐다.

신씨는 지난 5월 이후 수입이 반으

로 줄었다. 매일 대기소에서 한 시간을 기다리지만, 한달 중 일 하는 날은 13일 남짓에 불과하다.

신씨는 "코로나19로 일감이 크게 줄어 전문 기술가나 노련한 일꾼이 아니면 일감 경쟁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을 포기하고 일용직 시장에 뛰어들어온 사람도 있다.

지난 20년 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해 온 방모(55)씨는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사업을 정리한 뒤 지난 4월부터 일용직을 시작했다.

방씨는 "초반에는 일도 서투르는데다 코로나19와 장마까지 겹쳐 1주일에 2~3번은 허탕을 쳤다"며 "요즘같이 일이 가뭄인 때는 몸살 감기도 참으며 일한다"고 말했다.

일감을 구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삶을 무게를 짊어진 채 인력대기소 문 밖을 나갔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은 듯 보였다.

감염의 두려움보다 생계의 다급함이 우선인 이들은 재난의 맨 앞자리에 불려나오고 있다.

정승호 기자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외치는 의사들

대한병원의사협회 비대위 등 의사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에도 공사장 간 60대 벌금형 선고

### "빌린 돈을 갚아야해"

코로나19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확진 판정 이후 병원 입원을 거부한 6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원하기 싫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희 기자

## 전남지역 독감백신 접종자 31명 이상반응 없어

### 목포서 31명 일시 접종 중단 백신 맞아



전남도는 정부와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공급한 일시 접종 중단 독감 백신을 목포시에서 31명이 접종받았으며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 조사 결과 목포에서 접종이 이뤄진 백신은 콜드체인(냉장유통)을 유지해 공급된 것으로 파악

됐으며, 백신 유통차량의 온도기록지에도 백신 보관 적정온도인 2~8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자 31명은 목포지역 의료기관 2곳에서 접종 중단이 공식 발표된 지난 22일 오전 10시 이전인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접종 받았으며, 접종자 중 아직까지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

전남도는 목포시와 공조해 접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 제조사가 시행했던 안정성 평가에서 해당 제품들이 통상 25도에서 최소 14일, 최대 6개월까지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남도는 질병관리청 백신 유통조사와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접종 재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접종된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적정 냉장 온도를 유지하고 배송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 중 상온에 노출된 문제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전격 중단됐으나, 기존 공급체계와 별도 운영 중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산부의 접종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재개됐다.

김민정 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